여성 고위법조인 잇단 배출

순천여중 "경사났네"

전효숙 前헌법재판관 이어 박보영 대법관 제청

순천여중이 여성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배출한 데 이어 대법관 탄생을 눈앞에 두는 등 겹경사를 맞고 있다.

23일 순천여자중학교 총동창회에 따르면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박보영(50·순천여중 35회) 변호사를 임명 제청하면서 이 학교에서 여성 헌법재판관과 대법관을 배출하게 됐다.

순천여중 24회 졸업생인 전효숙(60) 이화여대 법대교수는 지난 2003~2006년 여성 최초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냈다.

학교 동문들과 박 후보자의 동창들은 이번에는 대법관을 배출하게 됐다며 크게 반기고 있다. 그의 중학교 동창은 "학교 다닐 때부터 워낙 학업성적이 빼어난 데다 리더십까지 뛰어나 언젠가 큰 일을 맡을 줄 알았다"고 말했다.

학교 안팎에서는 박 변호사가 호남·비서울대(한양대 법대) 출신으로 결코 유리한 조건이 아니었음에도 대법관 후보자가 된 배경이 화제가 되고 있다. 동창들은 한결같이 "그가 타인의 아픔을 배려하고, 소수의 목소리를 들어온 법조인이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박 후보자는 여성과 소수자 권리 보호를 위해 매진해 왔다. 가정법원 판사 시절 논문을 통해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비율이 지나치게 낮게 결정되는 관행을 지적함으로써 획기적으로 그 비율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변호사 활동 중에는 이혼 사건 의뢰인에게 치료상담을 거쳐 이혼을 결정토록 하는 등 이혼소송 및 제도 개선에 선구적 역할을 했다.

또 올해 1월 한국여성변호사회장에 취임한 뒤로는 다문화 가정 법률상담 시스템 구축사업을 주도하고 성폭력 피해 여성 지원사업에 전력을 쏟는 등 법조인 생활 전반에 걸쳐 여성과 소수자의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해 왔다.

순천시에 있는 순천여중은 지난 1940년 개교한 뒤 올 현재까지 68회 졸업생을 배출한 지역의 명문이다. 문은희 순천여중고 동창회장은 "학교에 큰 경사가 났다. 사회적 약자의 아픔을 돌아보고 챙기는 대법관으로 남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예정열기자 jyj@

4년제 사립대 절반 장학금 7천억 쏜다

104개 대학 적립금 전환…조선대는 계획 없어

막대한 적립금을 쌓으면서도 등록금 인하나 장학금 지급에는 인색했던 사립대 104곳이 적립금 약 7000억원을 장학금에 쓰기로 했다. 참여 대학은 전체 4년제 사립대(198개교)의 52.5%에 이른다.

그러나 누적 적립금 상위 20개 대학(2010 회계연도 기준) 중 조선대를 비롯한 경희대·수원대·세명대·영남대·덕성여대·서울여대·건양대 등은 적립금 전환 계획을 아직 세우지 않고 있다.

2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해규(한나라당)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립대학 장학적립금 전환 현황'에 따르면 4년제 104개교가 용도 전환이 가능한 누적적립금(6조3455억원)의 11.2%에 해당하는 7091억원을 장학 및 연구 적립금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최근 확정했다. 7091억원 중 장학적립금이 6766억원, 연구적립금이 325억원이다.

사립대들은 건축·연구·장학·퇴직·기타(발전기금·교직원 복지기금 등) 등 크게 5개 명목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건축·퇴직·기타 적립금을 장학·연구 적립금으로 전환해 장학금 지급과 연구비 지원에 쓰기로 한 것이다.

현재 누적 장학적립금(6637억원)과 합산할 경우 총 장학적립금은 1조3403억원이 되며 약 570억원의 장학금 지급 효과(대학 적용 연리 4.2% 기준)가 기대된다.

장학적립금을 가장 많이 확충하는 대학은 이화여대(1350억원)이며 홍익대(550억원)·연세대(490억원)·동덕여대(350억원)·대구대(305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연구적립금의 경우 청주대(90억원)·고려대(65억원)·국민대(50억원)·연세대(41억원) 등이 확충키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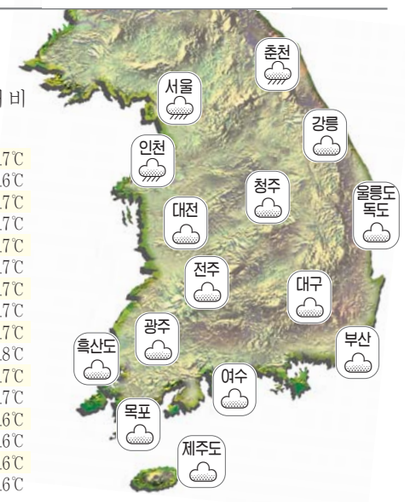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6시 46분 해짐 17시 47분 달뜸 03시 28분 달짐 15시 47분

쌀쌀…오후엔 비

대체로 흐리겠으며 낮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광 주	흐림	14/17℃
목 포	흐림	14/16℃
여 수	흐림	15/17℃
나 주	흐림	13/17℃
완 도	흐림	14/17℃
구 례	흐림	12/17℃
강 진	흐림	13/17℃
해 남	흐림	13/17℃
장 흥	흐림	13/17℃
순 천	흐림	14/18℃
영 광	흐림	13/17℃
진 도	흐림	13/17℃
전 주	흐림	13/16℃
군 산	흐림	13/16℃
남 원	흐림	13/16℃
흑산도	흐림	14/16℃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1.5m
먼바다	북서~북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0m
먼바다	북서~북	0.5~1.5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뇌졸중지수
보통	주의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2.0~3.0m
먼바다	북서~북	2.0~4.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0~2.0m
먼바다	북서~북	1.0~2.5m

	밀물	썰물
목포	11:48 --:--	04:58 17:23
여수	06:56 19:11	00:34 12:58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5(화)	26(수)	27(목)	28(금)	29(토)	30(일)
날 씨						
최저/최고	8/14	6/17	7/19	10/20	10/19	11/19

시민 재활용 장터 북적

아름다운가게 광주전남본부는 22일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광주시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야외광장에서 시민 재활용 장터인 '시민 자선 대축제 2011 빛고을 아름다운 세상'을 개최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남 첫 공립 대안고교 '한울고' 내년 3월 문 연다

전남지역에서 학교 부적응 학생들의 대안교육을 맡을 공립 대안고등학교가 내년 3월 문을 연다.

전남도교육청은 다음달 17일부터 22일까지 공립 대안교육 특성화고교인 '한울고등학교' 신입생 원서접수를 한다. 한울고는 공립 형태로는 광주·전남에서는 처음 개교하는 대안 고교다.

정원은 남녀 공학으로 2학급 40명이며 일선 학교 등에서 한시적으로 위탁받아 교육하는 이른바 가변(可變)학급(1학급)이 추가로 운영될 예정이다. 최신식 교육기자재와 시설, 기숙사 등을 갖출 계획이며 옛 목사동중학교를 증·개축하는 등 115억원이 투입됐다.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학교장 추천 등 서류전형과 학생·학부모 면접 등을 거쳐 선발한다.

한편 지난해 전남지역 중도 탈락 학생은 중학생 497명, 고교생은 1451명 등 2000명에 육박한다.

/윤영기기자penfoot@kwangju.co.kr

전남도교육청, 감리단 신설 추진

학교 시설사업 등 지도감독 기구 설치 조례안 입법예고

전남지역 학교의 시설사업 등을 전담지도 감독하는 감리단이 신설된다.

전남도교육청은 21일 "감리단 신설과 교육국, 행정국 명칭 환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입법예고를 했다"고 밝혔다.

교육지원국과 행정지원국은 옛 명칭인 교육국, 행정국으로 바뀌고 평생교육업무와 기획·조정 업무도 국(局)간 상호 조정된다.

신설될 감리단은 교육시설공사 지도·감독 ▲시공평가 및 하자 검사관리 ▲공사재해 방지 대책 ▲안전 및 환경관리 지도 감독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단장은 4급 서기관이며, 청사는 옛 전남교육정보원에 마련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